

첨단농산업 거점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고흥에 1100억 들여 33.3ha 규모 2022년 준공 청년창업 보육시설·임대형 스마트팜·실증단지 조성

전남도가 최근 전남 농업의 미래상인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 도덕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관련 산·학·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과 검증, 농작물의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분석 등 농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33.3ha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준공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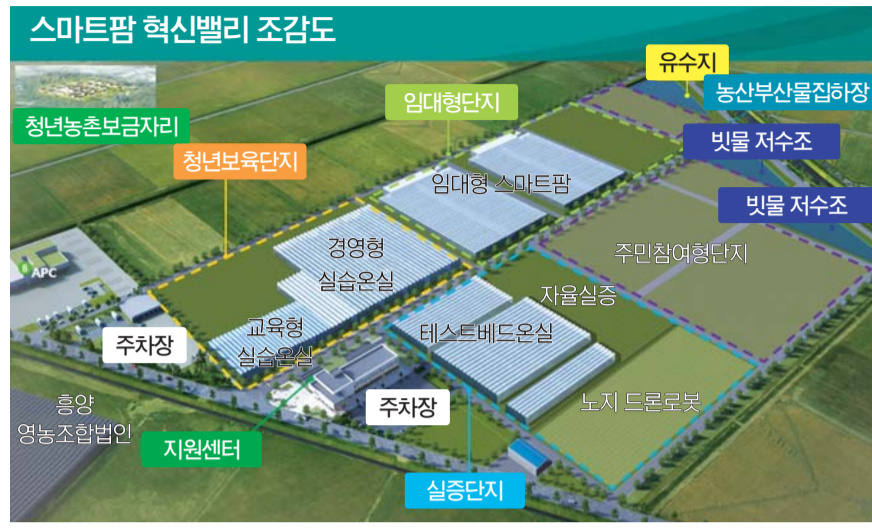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핵심시설은 청년창업 보육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지원센터 등이다.

보육시설은 스마트팜 취·창업에 희망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제

공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가경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실증단지과 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실증 등이 이뤄지게 된다.

시설 중 청년창업 보육시설은 현재 순천대에 위탁 교육중인 교육생의 실습 지원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조성되며, 나머지 시설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촌보급자리를 비롯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육묘장, 주민참여형 단지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해 교육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농촌 정착을 희망한 청년들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 한국 첨단 농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열대 작물과 친환경농자재, 농업용 드론·로봇, 반밀폐형 온실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체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농업기술원, 순천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해 스마트팜 관련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는다

12월15일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

광주시는 "납부 여력 있는데도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뿌리뽑기 위해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에 타인 명의로 도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금전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한 후 체납세금으로 충당한다. 또 귀국속, 명화, 서화 등은 동산 압류 후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195억원에 대해선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압류물건 공매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체납세 독촉장 조기 발송과 10년 이상 된 근저당권 재정비를 통한 체

납정수, 임차보증금 압류,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5개 자치구별로 세무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납정리반도 운영한다.

체납정리반은 소액 체납세 정수를 독려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현장업무 처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과 함께 사회복지 부서를 연계해 복지혜택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현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세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밀린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내년 R&D 정부예산안 1726억원 반영 '사상 최대'

올보다 488억 증액

전남도가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예산안에 올해 대비 488억원 증액된 총 1726억원을 반영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연구개발 분야 신규사업은 16건으로 올해 대비 4건(14%)이 증가했으며, 반영 예산은 436억원으로 179억원(70%)이 증액됐다. 계속 사업은 40건(1290억원)으로 309억원(31%)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분야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

없던 전남이 사상 최대로 확보한 정부예산으로, 신규-계속사업 포함 총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해 56건에 1조2555억원(신규사업 3901억원 계속사업 8654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바이오산업과 신설 등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남 핵심정책인 '블루바이오'를 뒷받침 할 신규사업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이 미래 에너지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블루에너지 신규사업으로 중대

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40억원, EV-ESS 사용 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20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 67억원 등이 반영돼 미래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쓰이게 된다.

또 화순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블루바이오 신규사업으로 전남 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 구축 50억원과 전남 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조류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실

증지원 4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의 대표적 미래 산업인 블루트랜스포트 신규사업과 관련해선 eVTOL 자율비행(이착륙단계)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45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39억원 등이 포함돼 미래형 이동·운송 관련 산업 육성을 하게 된다.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선 선박용 LNG 혼소 및 무탄소 연료 적용기술 개발 70억원, 석유화학 산업고도화를 위한 실증 20억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 데이터 개발·유통 활성화 협력

광주시-KISTI 업무협약

광주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인공지능 산업 핵심인 데이터 개발·유통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4일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인공지능 데이터 개발·유통 활성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분석,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 'ASTI' 등이 광주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희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은 "전국 1만 이상의 'ASTI 기업'을 통해 발굴된 인공지능 수요가 AI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의 핵심인 데이터 생태계를 이끄는 연구원과 협력하게 돼 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44건 적발

경찰청·국세청 합동단속

광주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 국세청, 자치구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 5개반을 편성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업소 및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중개업소 89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적발 유형은 ▲등록증 대어협외, 무등록 중개행위 등 3건 ▲실거래신고와 거래계약서상 계약일 상이, 확인실명서 기재 사항 또는 인장날인 누락 등 25건 ▲등록부와 간판의 사무소명 상이, 자격증 원본

미게시 등 16건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44건에 대한 수사 의뢰 3건, 행정처분 25건, 시정제도 16건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는 또 국토교통부 통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8월 현재 143건 277명에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민원발생 지역과 다운거래 의심 업소 및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공조 등으로 불법적인 거래행위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만간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암서 무관중 '2020 전남GT' 대회

19~20일...온라인 생중계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0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2020 전남GT'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7개 종목에 230여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메인 클래스인 '전남 내구'를 비롯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인 '슈퍼600', 넥센스피드레이싱의 최상위 클래스인 'GT300', 1000cc 모터사이클 종목인 '슈퍼바이크'까지 국내 정상급 모터스포츠 레이

스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전남GT 대표 클래스인 '전남 내구'는 가장 빠르게 달린 차량이 우승하는 스프린트 종목과 달리 60분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종목으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넥센스피드레이싱의 'GT300' 클래스는 310마력 이하의 양산차 기반 레이싱카들이 참가하며, 1000cc급 200마력 터사이클의 박진감 넘치는 '슈퍼바이크' 클래스는 코리아 로드레이싱 챔피언십(KRRC), 코리아 슈퍼바이크(KSBK) 2개 대회가 통합전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펼쳐진 '2019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라운드' ASA6000결승 경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비롯 페이스북, 네이버 TV, 카카오TV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반영된다. 결승전은 채널A와 채널A 플러스에서 TV 시청할 수 있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형성 농수산물 공동브랜드